

‘베스트셀러, 신뢰 안하지만 무시도 안한다’

〈출판저널〉독자 100인 긴급 전화설문조사

베스트셀러 부정적 인식 많아... ‘순위집계 못 믿어’

‘베스트셀러라고 다 좋은 책 아니다’

‘《마시멜로이야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부의미래》 언뜻 떠올라’

응답자 62%

‘베스트셀러 목록 신뢰 안해’

베스트셀러에 대한 〈출판저널〉독자들의 인식은 호의적이지 않다. 〈출판저널〉이 베스트셀러 문화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과반수가 ‘베스트셀러가 반드시 좋은 책은 결코 아니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시중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대해 응답자의 6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간헐적으로 불거진 사재기 파동 등의 영향을 입었을 뿐 아니라, 베스트셀러 집계 자체에 대해 ‘작위적 문화 현상’으로 치부하는 인식의 일단을 읽게 하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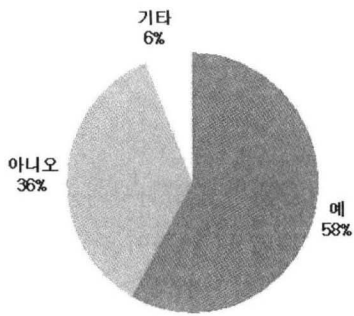
이에 앞서 〈출판저널〉은 독자들이 평소 베스트셀러에 대해 갖는 공통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평범한 내용의 다섯 문항을 제시, 설문조사를 폈다.〈〈그림1~5〉참조〉 〈출판저널〉 정기구독자 가운데 100명을 임의로 추출, 닷새동안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66명의 독자들이 유의미한 답변을 했다. 설문 대상은 공무원,

주부, 대학생, 회사원, 교사, 교수, 언론인, 문화계 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출판 및 서점 관련 직종의 독자들은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배제했다. 독자들 가운데는 설문 문항과는 별개로 출판문화와 출판계, 서점계 등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고언을 서슴지 않는 분도 적지 않았다.

각계 독자들 대상 5개 문항 조사...
출판·서점 종사자 배제

다만 책을 살 때 ‘베스트셀러 목록을 참고한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8%를 차지함으로써 ‘신뢰하진 않지만, 무시할 순 없는’ 모순된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스트셀러 목록을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는 대답도 36%에 달해, 베스트셀러 문화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도 보였다. 대체로 고학력·고소득 문화적 식견이 뚜렷한 〈출판저널〉 독자들의 성향을 감안하더라도, ‘보고싶은 책을 스스로 판단해서 고른다’며 자신만의 독서철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적지 않을 알게 한다.

〈그림 1〉 평소 책을 구입할 때 베스트셀러 목록을 참고하시나요?



한편, 언뜻 떠오르는 베스트셀러에 대해선 역시 최신간 베스트셀러인 《마시멜로이야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부의미래》와 함께 《다빈치코드》, 《긍정의 힘》 등을 꼽았다. 관심이나 신뢰도와는 별개로 일단 베스트셀러로 떠오르면 일반인에게 널리 책이 알려질 뿐 아니라, 일종의 도서·출판형 ‘밴드 왜건’ 현상을 짐작케하는 대답이다.

응답자 58% ‘베스트셀러 목록 참조해 책을 산다’

‘평소 책을 구입할 때 베스트셀러 목록을 참고하는가’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 과반수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특히 대부분의 독자들은 책을 살 때 베스트셀러 목록을 상당히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가 ‘베스트셀러 목록을 참고한다’고 대답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베스트셀러 목록을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는 독자가 36%에 이르러, 독서에 대한 뚜렷한 자아의식의 소유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베스트셀러 목록을 참고한다는 독자들 중에는 ‘대형 서점에 가서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가볍게 읽고 싶은 책을 고를 때 참고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소수이긴 하나 ‘명망있거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작가를 보고 선택한다’는 대답도 있었고, ‘전공책 등 사고 싶은 책은 서점에서 사고, 베스트셀러는 도서관에서 빌려본다’며 장르

별로 태도를 달리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 밖에 ‘인터넷과 신문서평을 참고한다’는 독자도 눈에 띄었다.

‘베스트셀러는 그저 단기간에 많이 팔린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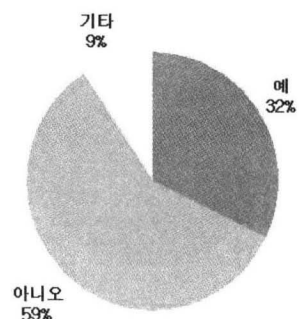
‘베스트셀러가 내용 역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독자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No!’였다. 베스트셀러의 질적 수준에 관해 설문에 응한 독자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말 그대로 ‘베스트 셀러(best + seller)(단기간에 많이 팔린 책)’에 불과했다. 그래서 ‘실제 내용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반응(5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독자들 중에는 상당히 분석적인 이유를 든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한 독자는 “어느 정도 상술이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갖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라고 해서 꼭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가 아닌 것처럼 베스트셀러도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실제 내용도 좋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은 32%를 차지했으며, ‘책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인 독자들도 9%에 달했다.

결론적으로 책을 즐겨 보는 많은 사람들은 베스트셀러는 분명 많이 팔린 책이지만, 반드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림 2〉 베스트셀러가 실제 내용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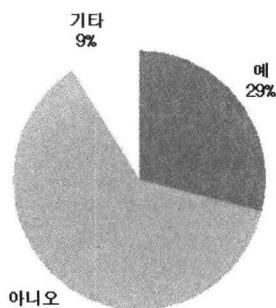
‘순위 조작’ 등 집계 방식에 의구심 팽배

‘시중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어떤 조작이나 작위가 없는, 믿을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은 보기에 따라선 미묘한 대목이기도 하다. 간혹 베스트셀러 순위를 두고 잡음이 일거나, 출판·서점계가 갈등을 겪곤 하는 현실에서, 독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그토록 불신의 수위가 높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대답이 나왔다.

응답자 가운데 무려 62%에 달하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보기에 따라선 베스트셀러의 신뢰도를 뛰어넘어 출판문화의 품위를 다시 생각해 할 만큼 심각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반응이다. 이 질문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곁들인 독자들도 많았다. 베스트셀러 순위에 대한 독서대중의 평소 관심을 실감케 하는 광경이다.

회사원 최 모씨는 “순위 리스트 자체가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베스트셀러 집계 자체에 대한 신뢰를 거부했다. 역시 회사원인 한 모씨는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언론매체의 작용이 없다는 할 수 없다”라며 언론에 일단의 원인을 전가하기도 했다. 현재 박사 과정을 이수중이라는 30대의 한 독자는 “실제로 (순위를) 조작하고 있는게 사실이지 않는가”라고 아예 단언하기도 했다.

〈그림 3〉 시중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어떤조작이나 작위가 없는, 믿을만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재기’ 등 출판·서점계 불신 원인 제공 탓도

현직 교사인 한 응답자는 “출판사에서 대량 구입해서 베스트셀러를 만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자못 ‘근거있는 오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자신도 한때 출판계에 몸담은 적이 있다는 또다른 응답자는 “간혹 책의 내용과 상품으로서 가치가 어우러져 진정한 의미의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도 있지만, 어이없다고 생각되는 ‘가짜’ 베스트셀러도 많다”면서 “솔직히 말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모 기업체 CEO를 지냈다는 50대의 한 응답자는 “사재기 파동이 잠잠하긴 하지만, 서점과 출판사간의 관계에서 볼 때 그 책임은 반반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독자들을 믿고 싶지만, 사실 많은 독자들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휘둘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베스트셀러 순위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독자들의 의식제고도 주문했다.

모 경제일간지 출신의 허 모씨는 “신간이 출간되면, 책 관련 출판사, 저자, 친척, 동료, 마케팅사 등이 대형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을 통해 한 사람당 몇 수십 권에서 많게는 몇 백 권씩 주문하는 게 그 바닥의 판매전략”이라며 마치 현장에서 목격이라도 한 듯 답변했다.

한편, 약 29% 가량의 응답자들은 그나마 ‘베스트셀러 순위가 믿을 만하다’고 대답, 베스트셀러에 대한 일말의 문화적 기대를 나타냈다.

‘그래도 대형서점 집계가 가장 믿을 만’

베스트셀러 순위를 매기는 주체(기관, 단체, 대형서점 등)를 묻는 항목에선 ‘대형서점’을 꼽는 이가 가장 많았다. 이는 설문 문항에서 아예 교보문고 등 빅3 대형서점, 온라인 서점, 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의 예시를 든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대형서점을 맨 먼저 꼽은데 대해 많은 응답자들은

‘베스트셀러 집계 공정성’을 들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어떤 주체가 베스트셀러를 집계하면 믿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형서점 39%, 온라인서점 20%, 한국서점조합연합회 6% 순으로 응답했다.

많은 독자들이 대형서점을 꼽은 것은 최근 이들 서점이 단지 책을 파는 곳이 아닌, 문화공간으로서의 장을 마련하는 등 독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덕분으로 생각할 만하다. 한 응답자는 “매출이 많다는 면에서 통계에 신빙성이 있을 것이고, 통계가 빠르기 때문”이라며 대형서점이 신뢰할 만한 베스트셀러 집계 주체가 될 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서점을 통한 도서주문 형태가 많아지면서, 현장의 신속한 주문-결제시스템으로 인한 실시간 베스트셀러 집계라는 장점 때문에 온라인 서점을 추천하는 이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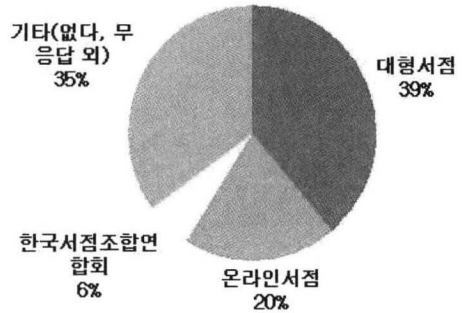
기타 응답자 가운데는 “베스트셀러 집계 자체가 없어야 한다”거나, “무작위 리서치를 통한 선호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에선 베스트셀러 집계 방식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응답자도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책이 출간될 경우 인쇄-판매라는 루트가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에, 공정성 있는 기관이 집계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정확한 집계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베스트셀러, 홍보 및 ‘이미지 메이킹업’ 수단으로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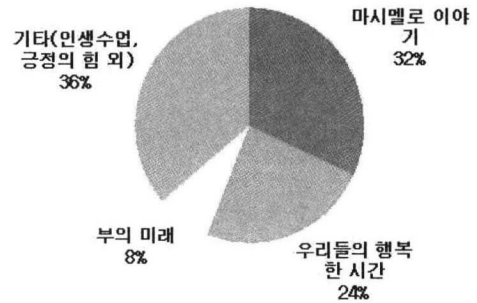
시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가운데 생각나는 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마시멜로이야기》가 가장 많이 떠오른다(32%)고 대답했다. 《마시멜로이야기》는 출간된 후 올해 8월말까지 약 6개월 동안 국내 종합베스트셀러 1위를 고수한 바 있다.

실제로 책의 서지적 가치는 차치하고서라도, 오래도록 톱 베스트셀러 자리를 줄곧 지킨 덕분에 웬만한 일반인들 치고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독자 대중에 대한 홍보효과나 ‘이미지 메이킹업’에 관한 한 베

〈그림 4〉 베스트셀러 순위를 어떤 주체(기관,단체, 대형서점 등)가 집계해서 발표하는것이 신뢰도 면에서 가장 공정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참고로 현재는 교보문고 등 빅3대 대형서점, 온라인 서점, 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에서 집계〉



〈그림 5〉 현재 시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들 가운데 생각나는 책은?



스트셀러 리스트를 능가하는 수단이 없음을 절감하게 하는 사례다.

시나리오로 각색되어 9월에 영화로 개봉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2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책은 작년 4월에 출간된 이래 베스트셀러 30위 안에서 꾸준히 팔리다가 영화개봉에 힘입어 현재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다.

8월에 출간된 신작 《부외미래》(8%)도 책이 나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저자의 브랜드 가치와 단기간에 베스트셀러 1~3위를 오르내린 저력때문인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언뜻 떠오르는 책’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독자들이 늘 머릿속에 간직하거나, 얼핏 떠올릴만한 책으로, 《인생수업》,《다빈치코드》,《긍정의 힘》,《배려》,《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블루오션》,《PING》등 한때나마 시중을 풍미했던 베스트셀러들이 대부분이다.

정리 정윤희 기자